

第11回 全國教育研究大會 學校圖書館分科 研究發表會 參觀記

金 京 一

序 言

1963年 4月에 大韓教育聯合會 奉下 研究團體로서 加入 發足한 韓國學校圖書館 研究會는 同年 10月을 첫 出發로 每年 同研究會가 主管하여 學校圖書館研究發表會를 開催하였다.

모든 일이 그려하듯이 하나의 큰 일을 育成 發展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의 分化된 線이 있어야 하고 이 分化된 各己 線의 結實을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서 全體의in 發展을 左右한다고 하는 事實은 여기서 다시 強調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其間의 學校圖書館研究活動과 發表大會의 開催는 學校圖書館 發展의 한 分野로서도 큰 意義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發展에 直接的인 功獻이 있었다고 하겠다.

教育課程에서의 學校圖書館의 教育의in 重要性을 指適하고 있고 또 圖書館法에서의 學校圖書館設置의 義務化 등은 學校圖書館 發展의 根幹이 되어 왔지만 實際로 發展過程에서 提起되는 副產物들은 너무나 學校圖書館의 前進을 숨가쁘게 하고 있음은 事實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숨가쁜 副產物인 問題點들이 그리 쉽게 解消되리라고는 믿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傍觀만 할 수 없는 것이다. 最近 2,3年間의 學校圖書館界를 展望 考察해 볼 때 2,3年前의 發展相에서 늦추어지고 形式的인 數字上 (圖書 500권 所藏圖書室도 包含)의 增加만을 나타내고 있는 實情이 아닌가 생각된다.勿論 이와 같이 늦추어진 學校圖書館界的 底面에는 法의 施行이 延遲하는 點도 있겠으나 從來까지의 學校圖書館이 一般 圖書館學의in 面에서만 다루어지고 教育學의in 面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데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땅에 適合한 學校圖書館의 教育的本質을 찾고, 當面한 隘路問題를 形式的이 아니고 科學的方法인 現場을 中心으로 한 研究結果에서 具體的인 打開方法을 開發하고 나아가서는 發展을 위한 問題點을 重點的으로 段階 있게 解決하도록 組織體를 通하여 努力하고 戰取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같은 時點에서 이번에 大邱에서 開催된 學校圖

書館分科研究大會의 經過와 正會員들의 研究報告에 關한 講評과 앞으로의 研究活動의 展望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經過報告

a. '67年度 學校圖書館分科에서 提示한 研究主題

(1) 교과 학습지도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 활용의 方法에 관한 연구

(2) 학교도서관과 학급문고를 중심으로 한 독서지도의 계획과 실천에 관한 연구

(3) 도서관 이용 교육의 교육과정을 각 교과와 어떻게 연관하여 실시할 것인가의 방법 연구

以上 提示한 研究主題는 敎聯奉下研究團體인 14個 研究團體가 共通의으로 세 가지의 主題로 集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具體的인 主題들과 內容이 省略되어 「全國教育研究運動計劃」에 發表되었다.

b. 會員들의 研究實態

學校圖書館分科에 提出된 研究報告書 一覽

(順序는 接受順)

番號	研 究 主 題	研 究 書 所 屬	正 會 員
1	학교도서관의 학습 파일 자료 제작 활용에 관한 실천연구	공주군 서민식 반포국민 학교	○
2	독서지도에 관한 현장연구	경기도 한문자 광주국민 학교	○
3	讀書習慣化를 위한 學級 文庫活用에 關한 研究	印範植 洪城國民 學校	
4	地域社會까지 미치는 學 校圖書館奉仕에 關한 實 行研究	羅州郡 李明憲 全川國民 學校	○
5	국민학교 도서분류 규칙 에 대한 문헌 및 실행적 연구	부산 金秀姬 남일국민 학교	

6	非圖書資料의 効用性과 그 利用方案에 關한 一研究	高惠淑	洪川郡周峰國民學校	
7	讀書實態調查를 通한 圖書館利用指導의 方案	禹洋鶴	慶南女子中學校	○
8	學習問題解olution을 둡기 위한 圖書館資料活用에 따르는 問題點과 解決策	金完起	春川敎大附屬國民校	○
9	도서관 교육과정의 구성과 지도의 실제	김진식	수원매산국민학교	○
10	學校圖書館資料를 利用한 讀書能力向上의 實行研究	金永鎬	慶北河陽國民學校	○
11	圖書館과 國語科 學習指導을 直結시키는 方案에 關한 研究	柳在植	晋州中安國民學校	○
12	圖書館利用의 架橋를 위한 2學年 圖書館教育實踐研究	金重善	麗水 東國民學校	○
13	도서관 이용지도 교육과정을 각교과와 어떻게 관련 구성하고 지도 할 것인가	임구상	聞慶國民學校	
14	國民學校必讀圖書調查의 概要	한봉오	忠州교현국민학교	
15	教科學習指導에 있어서의 圖書館資料活用方法研究	최수용	서울인왕국민학교	
16	독서의욕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 이용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노현우	忠北신송국민학교	
17	讀書偏重傾向의 矯正指導에 關한 研究	金炳洙	全州中央國民學校	○

註 : ○表는 正會員임을 表示함

c. 研究報告書 審查

全國 各市道 教育委員會에서 優秀論文으로서 提出된 17篇의 研究報告書는 다음과 같은 基準에 의하여 審查하였다.

(1) 審查規準

- 1) 創意性 20%
- 2) 研究節次 및 技術 20%
- 3) 研究內容 20%
- 4) 研究報告書의 作成要領 20%
- 5) 研究의 教育的 功獻度 20%

(2) 指導講師

張一世(國立中央圖書館)

朴致旭(慶北道教育委員會)

金京一(中央敎育研究所)

d. 學校圖書館分科 研究發表大會 日程

1) 時日 : 1967. 10. 18 午後 1時부터
1967. 10. 19 午後 1時까지 (2일간)

2) 場所 : 慶北大學校

3) 參加者 : 正會員 9名

一般會員 125名

指導講師 2名

e. 研究發表狀況

學校圖書館分科에 서의 研究發表는 1人當 發表時間을 25分式 配定하고 發表가 끝난 후에 5分의 質疑時間으로 定하여 實施하였다.

f. 特別講演

時間關係로 正會員들의 研究發表가 끝난 후에 春川敎育大學의 崔台鎬學長님의 「讀書指導에 關한 問題」와 「글짓기 지도」에 關하여 特別講演이 있었으며 參加者들로 하여금 많은 새로운 배움과 同時に 本 發表大會를 보다 빛나게 하였다.

以上으로써 이번 學校圖書館分科에서 가진 研究發表會의 大略을 간추려 經過를 報告하고 다음은 發表한 研究報告에 對한 全體的인 總評과 앞으로의 課題에 關하여 言及하기로 하겠다.

2. 研究報告에 對한 講評

研究報告에 對한 講評은 大會 當日에 너무나 時間의 限 制約을 받았기 때문에 綜合的 講評만을 추려서 言及하고 個別의인 講評은 言及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遺憾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個別의인 講評도 같이 言及할까 한다. 個別의인 講評의 對象은 當日 發表한 研究報告書에 限해서 하기로 하겠다.

(1) 研究別 講評

a. 金炳洙先生의 「讀書偏重傾向의 矯正指導에 關한 研究」는 主題選定부터 從來의 読書指導라는 抱括의 인 主題選定의 傾向을 是正하여 読書指導라는 큰 範圍에서 한 部分이라고 할 수 있는 読書偏重傾向을 治療하여 正常의인 読書活動을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良書를 選定하여 自覺의인 読書態度를 길러주는 데 本研究가 가지는 目標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點에서 主題選定과 目的이 매우 適切하고, 研究를 實踐하는 데 있어서 優良選定圖書를 資料로 하여 年間 読書指導基準表을 作成하여 實施하였다는 點은 參考의 價値가 있다. 그러나 現場을 中心으로 한 読書指導가 單獨敎科로서 保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敎科와 關聯시켜서

讀書指導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이러한 問題點의 打開와 方法이 除外되었다고 함은 다시 한번 再考의 餘地가 있다. 이러한 研究의 缺點에서 读書指導가 自覺的인 读書習慣을 가지도록 指導하는 面이 不足하고 多少 强制性이 內包된 指導였다는 結果을 엿볼 수가 있었다. 또 读書偏重傾向 矯正을 위한 實際 指導에 있어서서 圖書의 復本問題도 主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問題에 對한 研究의 結果 提示가 없다고 함은 매우 아쉬운 點이라고 하겠다.

b. 金永鎬先生의 「學校圖書館資料를 利用한 读書能力 向上의 實行研究」는前述한 读書偏重矯正에 關한 指導方法과는 달리 各教科와 聯關시켜 研究되었으며 이 研究에 全教師가 參與하도록 读書指導를 위하여 學校教育이 統合되었다는 點은 좋은 方法으로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또 读書能力 向上 指導를 위한 資料로서 選定圖書目錄의 作成과 特히 國內 兒童作家들의 代表作品의 內容分析과 作家의 人間性을 分析한 (註: 读書指導資料에 包含되어 있음) 資料는 이와 같은 分析이 读書指導上에 있어서 새로운 試圖라는 點에서 價值 있는 資料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研究에 있어서 慾心을 토로한다면 读書能力 向上을 위한 實踐의 指導結果에서 이를 檢證하고 評價할 수 있는 读書能力 테스트(아직 우리 나라에 없다) 試案이라도 研究 作成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c. 金完起先生의 「學習問題解決을 돋기 위한 圖書館 資料 活用에 따르는 問題點과 解決策」은 昨年度의 國語科를 主로 한 圖書館 資料 活用의 一次的인 研究의 繼續 研究로서 이번에는 社會科學學習을 中心한 資料 活用에서 세로이 提起된 問題點들은 現場을 中心으로 이의 解決方途를 찾는다. 本 研究의 目的이 있다. 特히 社會科 學習展開에 資料를 活用함에 있어서 問題點의 하나인 復本問題를 分層別로 小單元化하여 活用시킴으로써 解決했다는 點이라든가 또는 크리핑 資料의 臺紙 한쪽에 그림, 사진 (名勝古蹟등) 資料에는 仔細한 說明을 부쳐 兒童들의 自學自習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研究 製作하였다라는 것은 從來의 學校圖書館에서의 資料整理가 너무나 一般圖書館學에만 依存하였다는 點에서 發展된 資料製作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研究 發表當時에 問題로서 提起된 資料의 學習活動展開에 活用시키는 效果的인 方法의 하나로서 「社生科 單元別 資料書架」를 別途로 排架하여 學習期間만 이 資料를 排列하여 利用시키도록 하고 또는 豫約制度 등도 適用할 수 있을 것이다. 當日의 많은 關心事が 되었던 主題標目의 標目表 問題는 近日 圖協에서 「國民學校 主題標目表」가 出版될 것이니入手하여 參考하도록

勸獎한다.

d. 金重善先生의 「圖書館利用의 架橋을 위한 2學年 圖書館教育 實踐研究」는 金先生의 在職校인 麗水東國民學校에서는 3學年부터 圖書館利用教育을 實施하고 있으며 1, 2學年인 低學年 兒童들이 3學年에 進學할 때는 全體 利用教育이 白紙狀態이므로 이러한 狀態에서 發生하는 當面한 問題點을 어떻게 打開하여야 할 것인가에 對한 解決方途를 研究한 것으로서, 이 研究를 위하여 實施한 基礎調查가 잘 되어졌다. 이 基礎調查에 나타난 다음의 結果는 利用教育에 對한 新로운 方法論을 提示한 것으로서 매우 興味 있는 資料가 될 것이다.

問: 圖書館教育이 안 되는 原因?

結果: 圖書館教育基準案이 없다	83%
圖書館教育教材가 없다	79%
圖書館教育學習資料가 없다	75%
圖書館教育을 위한 參考物이 없다	64%
教師들의 指導技術 및 經驗이 없다	16%
圖書館教育의 必要를 안 느낀다	5%

註: 教師 20名 對象으로 調查한 것

이 研究에서 높이 評價되어야 할 點으로서는

① 圖書館 利用教育이 國語科에 屬해서만 實施하거나 또는 無理하게 正規授業形態로서 實施한다는 두 가지 問題에 對해서 우리 나라의 學校教育의 實際情에서 後者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前者를 指하되 이 研究에서 前者에만 極限시키지 않고 모든 教科(國, 社, 道, 特, 美等)와 聯關시켜 實施 할 수 있는 方法을 決定的으로 指摘하고 立證하였다는 點이다. 이 方法을 各學年別, 各教科單元分析과 利用教育單元을 聯關시킨 細密한 指導計劃書는 땊은 學校圖書館이 參考하여야 할 價值 있는 研究所得이라고 할 수 있다.

② 利用指導의 實際에 있어서 低學年 利用指導를 위한 教本(text book)을 兒童의 知的, 心理的 要件에 맞도록 「그림 獨본」으로 만들었다는 點.

이와 같은 利用指導의 發展的인 方法은 우리 나라의 利用指導方法에 있어서 처음 試圖된 것으로서 앞으로 「이용지도 그림 獨본」의 出版과 더불어 一線學校에도 많이 活用되어지기를 바란다.

이 研究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그림 獨본」도 效果的이지만 teaching tool로서의 「슬라이드」를製作하여 使用하면 特히 國民學校 兒童들에게 보다 세로운 興味를 가지고 높은 教育的 效果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 金鍾植先生의 「도서관 교육과정의 구성과 지도의 실제」

이 研究는 4學年の 圖書館利用教育을 中心으로 國語科學習 分析에 의한 利用教育過程을 構成하여 實施한

것으로서, 利用指導를 위한 時間配當을 特定하고(土曜日 3時間後) 月別, 週別 利用指導를 위한 學習單元 一覽表에 準하여 計劃性 있게 實施하였다. 한 예를 들면 「독서한 것을 정리한다」의 單元을 放學前에 教育시킨 후 放學中에 읽은 책의 독서 감상을 우편 엽서에 적어서 先生에게 보내게 한 것은 좋은 指導方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利用指導의 單元이 4學年만 極限시켰다는 点에서 指導上 系統性이 희박했고 또 指導內容面에서 限界 決定 등이 어려웠다고 하는 缺點은 單元構成의 限制定性에서 오는 結果라고 하겠다.

f. 서민식 先生의 「학교도서관의 학습 파일 자료 제작 활용의 실천연구—5학년 사회과를 中心으로—」

研究主題의 副題에도 밝혀져 있는 것과 같이 이 研究는 5학년 社會科學習指導에 圖書以外資料를 活用하여 效果的 學習方法의 改善을 試圖하기 위하여 圖書以外資料(寫眞, 그림, 旅行案內書, 標語, 포스터, 圖表, 電報, 統計, 其他 등)를 쳐은 經費로써 어떻게 計劃性 있게 蒐集하고 整理하여 活用시킬 것인가에 關한 實踐研究인 것이다.

i. 研究에서 좋은 점은 資料蒐集을 위한 事前 調查研究가 致密하였다는 것과 地域社會의 各機關, 學父兄, 都市 他地方學校와의 鄉土, 古蹟關係 資料의 相互交換의 効率的인 方法들은 「돈이 없어서 資料가 不足하다는 地校圖書館」에게 산 教訓의 價値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資料의 整理에 있어서 主題 標目의 一次 二次 三次의 副標目 등의 使用은 兒童들의 理解力의 速度와 限界에서 좀 더 研究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主題名만으로 直接 案內 檢索할 수 있는 整理方法이 보다 빠르고 利用에 便利하리라고 생각한다. 主題標目에 對하여는 圖協의 主題標目表를 參考하기 바라고 研究主題의 「學習 파일 資料」라는 國語의 概念도 다시 한번 새겨 볼必要가 있다고 본다. 圖書以外資料, 非圖書資料 Vertical file 資料 등 專門用語가 이미 많이 通用되고 있음을 參考하기 바란다.

g. 禹洋鶴 先生의 「讀書實態調查를 通한 圖書館利用指導의 方案」

이 研究는 質問紙法에 의한 讀書實態調査를 實施함으로써 地校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여러 가지 問題가 提起되었으나 이의 根本의in 解決을 圖書館利用指導에 彙歸하는 시켜 研究하였으나 實際研究에 있어서 範圍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研究의 重點이 散慢하였고 나아가서는 成果도 크지 못하였다고 보겠다. 그리고 實態調査에서 나타난 15個의 問題點에서 圖書館自體의 運營改善의 必要性이 많이 提起되었으나 이 點에 對한 改

善의 實踐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點은 앞으로 研究되어야 할 課題라고 생각한다.

h. 李明憲先生의 「地域社會까지 미치는 地校圖書館奉仕에 關한 實行研究」

地校圖書館 機能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地域社會의 文化 센터의 役割을 地校所在地를 中心으로 地域의 人與件에서 地校圖書館으로 하여금 어떻게 奉仕할 것인가에着眼한 研究로서 地域社會의 모든 讀書施設(마을文庫 4H 구락부 등)個人所藏圖書까지를 地校圖書館에서 統合, 組織化하여 部落別로 配本所를 設定하여 地域住民들에게 奉仕하였다. 研究發表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마치 人間 Bookmobile과 같은 奉仕活動은 높이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地校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이와 같은 奉仕活動의 結果에서 地校와 地域社會의 文化團體, 學父兄, 部落民들의 紐帶를 強化하고 自體의 人讀書運動의 基盤을 形成하였다는 點은 地校圖書館으로 하여금 地域社會 奉仕活動의 좋은 본보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i. 한문자 先生의 「讀書指導에 關한 現場研究」는 主題의 性格으로 보아 너무나 範圍가 넓지만 讀書指導에서도 主로 計劃的인 讀書 서어를의 指導와 活動을 通하여 民主教育의 原理인 社會性(民主性) 指導를 目標로 研究하였다.

이 研究에서 特記할 것은 兒童들의 讀書興味 開發을 위한 方法으로서 독서 콘테스트, 스토리 텔링 등이 잘되었고 또 全兒童(5學年)들을 均衡 있게 指導하였다는 點이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研究範圍가 넓었다는 점에서 研究의 結實이多少 散慢했다는 缺陷이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2) 綜合的인 講評

먼저 講評에 앞서 研究主題를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主題分區	讀書指導	利用指導	敎直	數科	資管	料理	地域社會奉仕
數	3	3	2	1	1		1

註: 正會員의 研究報告에 限함

이것을 道別로 나누어 보면

市道別	釜山	京畿	江原	慶南	全南	全北	忠南	計
數	1	2	1	1	2	1	1	10

위의 研究主題分類에서 볼 때 研究內容面에서의 研究傾向을 全體의으로 考察하면 讀書指導와 利用指導에 關한 研究가 全體의 半以上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은 事前 研究主題가 提示되었는 데도 그 理由가 있겠지만 實際的面에서 學校圖書館이라는 現場에서의 運營 比重이 讀書指導와 利用指導에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研究傾向은 昨年度와 거의 같은 傾向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昨年度에는 主題選定이 매우 廣範圍한 內容을 포함한 選定傾向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大部分이 적은 主題에서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研究로서 創意性이라든가 研究方法 등이 많이 向上 發展되었다고 하겠다. 또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알찬 研究를 위한 좋은 方向으로의 轉換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번의 全國의 司書教師와 圖書室擔當教師들의 研究結果에서 다음과 같은 研究의 結實을 떼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學校教育의 現實情에서 볼 때 利用指導는 各教科와 關聯시켜서 實施하는 것이 가장 適切한 方法이라는 決定的인 事實을 立證하였고, 또 各教科와의 關聯된 利用指導의 單元, 內容, 方法의 具體的인 案이 마련되었다.

둘째 本大會의 主目標인 「學習方法의 改善」을 實際 教科學習에 圖書館資料를 直結活用시킴으로써 教育의in 效果와 더부여 學習方法의 改善을 위한 新로운 方法을 研究 提示하였다.

세계 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讀書指導가 計劃的이고 實際的인 指導로서 民主市民으로서의 人格形成에 도움이

되었으며 또 指導方法의 新로운 研究와 提示가 있었다.

以上이 綜合的인 成果라고 할 수 있겠고 이 成果에 反하여 몇 가지의 缺陷을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參考文獻의 活用에 있어서 批判的인 面이 격고 模倣性이 많았다는 點

둘째 研究結果가 너무 過大評價되었다는 點

셋째 新로운 研究主題와 內容의 開發이 不足했다는 點

3. 結論

研究活動이 없이 發展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또 發展할 수도 없는 것이다.

學校圖書館의 外的發展에서 內的으로 깊이 있게 發展하여야 할 現段階에서 이번에 發表한 正會員들의 研究成果는 學校圖書館 發展에 새로운 길을 밟아 놓았고 이 길은 또 앞으로 繼續 前進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데 터전이 됨을 自覺하여 現場에 어려운 與件이 많이 있지만 繼續하여 研究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끝으로 正會員들의 結論과 提言에서 共通的으로 提示된 「教師들에 對한 圖書館教育研修을 가지도록 해 달라는 것과 또 研究結果를 잘 檢討하여 一般化하라는 것」 등의 提言은 教育行政當局이나 道市教育研究所, 教育委員會, 圖協 등에서 極烈한 關心을 가지고 發展計劃의 立案과 其他面에 反影되어 解決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正會員들의 嚴摯한 研究와 發表에 對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린다.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一線에서 苦闘하시는 會員 諸位의 健勝을 비웁니다.

會員 諸位의 꾸준한 協助와 鞍撻로 創立한 以來 落後된 圖書館 發展에 盡力하고 있음을 憤憤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本會의 財政은 國庫補助와 會費 이온바 國庫補助는 當局에서 指定 承認하여 준 事業費補助이며 自體事業費와 經常費는 會費로 充當됩니다. 지난 第14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總 18種의 事業을 成功裡에 目的을達成하고, 우리들의 權益을 높이려는 共同努力에 會員諸位의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苦生하시는 會員들이 어려운 事情이 있을 줄 料되오나 早速한 時日內에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